

## 빠른 정답

### [제6회]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
| 1  | ①  | 2  | ②  | 3  | ⑤  |
| 4  | ④  | 5  | ⑤  | 6  | ②  |
| 7  | ③  | 8  | ⑤  |    |    |

### [제7회]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
| 1  | ③  | 2  | ④  | 3  | ⑤  |
| 4  | ①  | 5  | ①  | 6  | ④  |
| 7  | ③  |    |    |    |    |

## 정답과 해설

### [ 6회차 ]

#### 관절염

1. 답 ①

**정답**

① 연골은 관절면 사이에서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연골이 닳으면 관절면이 불규칙하게 변형되는 것이지, 불규칙한 관절면 사이에서 관절 운동을 돕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해설**

- ② 활막은 연골 주위에서 활액을 분비하여 마찰을 줄인다고 하였다.
- ③ 관절경 수술은 완전한 치료가 아니며, 효과 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④ 관절염이 진행되면 움직임과 무관한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반복적 외상은 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며, 활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2. 답 ②

**정답**

② 반복적 사용은 특발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고, 3문단에 따르면 이 역시 활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 ① 두 관절염 모두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③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활액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통증과 부기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 ④ 항류마티스약제는 질환의 진행 자체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⑤ 세균 감염이 원인인 속발성 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되어 마찰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답 ⑤

**정답**

⑤ ㉠과 ㉡의 공통 치료 방안인 관절경 수술은 관절을 세척하고 염증이 발생한 활막 조직을 제거한다.

**오답해설**

- ① 두 유형 모두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 ② ㉢은 세균 감염이나 결핵 등으로 인한 관절 파괴 후 발생할 수 있다.
- ③ ㉠과 ㉡은 모두 연골이 닳아 발생한다.
- ④ 반복 사용은 특발성의 원인 중 하나이며, 속발성과는 무관하다.

4. 답 ④

**정답**

④ (나)는 과도한 자가면역 신호를 억제하고 (다) 또한 면역 과잉 반응을 신속히 억제하기에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양상인 활액의 과다한 분비는 완화된다.

**오답해설**

- ①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 소염제는 관절염의 질환 진행 자체는 중단시킬 수 없다.
- ②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 전반적인 면역이 억제되면 잠복 질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다)는 면역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지, 면역 과잉 반응으로 발생한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 (가)는 항류마티스약제와는 다르게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지는 않는다.

#### 현대소설

#### EBS 수능특강 306쪽 연계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5. 답 ⑤

**정답**

⑤: 윗글에서 어머니가 ‘동네 파리가’ 그릇들에 엉겨 붙은 모습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윗글에서 어머니는 동네 파리가 그릇들에 엉겨 붙은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력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

**오답해설**

- ①: 윗글에서 어머니는 ‘부자 친구’를 원망하다가 대들었으나, 나중에는 모든 것이 ‘부자 친구’의 뜻대로 되고 말았다. 따라서 어머니는 ‘부자 친구’에게 분노를 표출하였으나 결국 굴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윗글에서 어머니는 부자 친구에게 ‘너는 고생해 싸지만, 네 자식들이 불쌍’하다고 들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어머니는 전세방에 살게 되었음에도 자식들을 계속 공부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다.
- ④: 어머니는 윗글에서 개 돼지도 아니고 사람으

로서 자식 대학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다고 설치었는데, 이를 통해 어머니는 오히려 자식들의 공부를 중단 시키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6. 답 ②

**정답**

②: ‘지독한 혼란’은 과거와 달리 사무적이고 냉랭해진 ‘그’의 태도와 ‘나’의 기억 속 ‘그’의 모습 간의 괴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그’가 비참하게 돼서 돌아올 거라는 ‘나’의 예상과 달리 ‘그’는 훌륭하게 돼서 돌아왔다. 따라서 ‘그’는 예상했던 모습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 ③: ‘나’의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지독한 혼란’은 ‘그’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 간의 괴리에 대한 ‘나’의 반응이자 내적 혼란이지, 처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지독한 혼란’은 ‘그’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 간의 괴리에 대한 ‘나’의 반응이자 내적 혼란이지,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7. 답 ③

**정답**

③: ㉠에서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다그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나’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여서 ‘그’에게 격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그것은 ‘그’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에서 ‘나’는 겁을 내며 ‘그’를 다그친다. 이는 ‘어떤 생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에서 ‘나’는 ‘그’가 가짜 대학생짓과 도둑질을 했다고 오해하고 그를 다그치고 있고, ㉣에서 ‘그’는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으라며 앞에서 한 말들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자신이 사실은 부잣집 도련님을 설명하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며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에서 ‘그’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였고, 그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다며 자신이 얻은 가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자신의 아버지 덕택이며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8. 답 ⑤

**정답**

⑤: ㉧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간의 대화는 서술자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다. 서술자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나’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은 서술자의 가정이 망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던 날’이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독자는 작중 상황을 쉽고 간편하게

-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은 부자 친구가 어머니에게 한 말을 서술자의 입장에서 독자에게 전해주듯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독자는 작중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은 어머니의 말을 서술자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적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은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가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직접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적 태도에 쉽게 이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 7회차 ]

### 언어와 AI

1. 답 ③

정답

③ 1문단에서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삶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있다.

오답해설

- ① 언어의 주요 특징들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 ② 이론들의 시대적 배경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④ 인공지능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 ⑤ 언어에 대한 이론들이 상호 배타적임을 강조하지도, 그것들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해명하지도 않는다.

2. 답 ④

정답

④ 언어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본 워프의 언어 상대성 가설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가 사고를 달리하게 만든다고 본다. 그러나 인공지능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해당 언어 구조의 틀에 맞춰서 판단할 수도 있기에 다른 표상을 외화하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워프가 주목한 지점은 4문단 마지막에 나오듯이 '외부 대상의 표상'이 아닌 '사고와 행도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답해설

- ① 언어가 생득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촘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 능력을 기계가 단순한 패턴 학습만으로는 모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언어의 복잡한 내부 규칙 체계를 통하여 언어 사용자가 논리적인 문장을 무한히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하였으니, 내부 규칙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계가 이를 재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의 체화와 맥락 의존성은 고도의 계산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이라도 해석해내기 어렵다고 보기에 적절하다.
- ⑤ 암묵 지식으로 남는 언어의 함의는 가치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인공지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3. 답 ⑤

정답

⑤ 3문단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확률적 계산만으로는 언어에 포함된 문화나 역사를 해석해내기 어려우며, 5문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최적 문장을 생성한다고 설명한다. 텍스트 너머의, 혹은 텍스트에 숨겨져있는 정체성과 삶의 맥락을 확률만으로는 해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윗글에 따르면 복잡한 연산을 하는 인공지능일 지라도,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맥락을 반영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을 해서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 ②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확률적 학습 방식이 사고 구조의 재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 ③ 상황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맥락의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 ④ 텍스트 자료만으로 사고의 '과정'을 모사할 수 없는 것이지, 2문단에 따르면 인공지능도 정교한 문장 생성을 할 수 있다.

4. 답 ①

정답

① 연구자 A의 이중 언어 환경에서 일부 사고 범주가 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시각은, 워프의 특정 언어 구조에 따른 논리적 체계가 존재한다는 관점과 유사하다.

오답해설

- ② 연구자 A는 이중 언어 화자가 언어의 틀을 넘나들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워프의 상대성 가설과 모순되지 않고 확장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촘스키는 언어 능력이 생득적인 보편 문법에 기반한다고 보기에 언어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언어 능력'이 생득적이고 자율적인 것이지 이를 사용하는 화자가 언어 능력에서 자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언어가 논리적 일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베르니케가 아닌 촘스키의 주장이다.
- ⑤ A는 일부 사고 범주는 언어적 틀을 넘어서 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중 언어 환경에서 모국어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며 변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언어 구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워프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다.

### 고전시

(가) EBS 수능특강 56쪽 연계

김진형, 「북천가」

(나) 윤선도, 「만홍」

5. 답 ①

정답

①: (가)는 '청산이 글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라는 유사한 형식의 반복을 통해 시 짓고 술 마시는 행위를 통한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 ②: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 ③: (나)는 '반가움이 이리하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가)와 (나)에서는 음성상징어를 확인할 수 없다.

6. 답 ④

정답

④: [C]에서 '먼 산'은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는 대상이다. 따라서 '먼 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C]에서 드러나고 있는 있지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A]에서는 양금을 파한 후 '절집'에 도착하여 그곳의 풍경을 보고 느낀 흥취가 드러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B]에서는 '후세'의 남자들에게 '남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 내 노릇'을 하면 상쾌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C]에서 화자는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반가움은 '그리던 임'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A]에서 '기생'을 다시 못 오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호사스럽기에, 즉 호사롭게 사치하는 부분 같기에 그러하고, [B]에서 화자는 '태평'에 놀게 되면 한이 없으며 구할 일도 없이라는 것에서 이는 화자의 이상임과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소감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답** ③

**정답**

- ③: (가)에서 화자는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한을 마라/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라고 한다. 맥락상 '천고사업'은 자연을 즐기는 삶이 아닌, 사대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 화자는 '선비'를 데리고 '시 짓고 술 마시'고 있다. 이는 유배 중임에도 시를 지으며 술을 마시고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나)는 '강산'에 누운 것은 '남군 은혜'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강호에 노는 것이 자신의 분으로써가 아닌 임금의 은혜임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이에 대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신이 강호에 노는 것은 커다란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강호에 놀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가)에서 화자는 '고향'의 풍경에 대해 무양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어린' 것들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낸다. 또한 (나)는 '내 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아 강산을 지키라 하였음을 밝히는데, 여기서 화자가 강산을 지키게 된 이유는 '내 성'이 게으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 만사를 맡지 않고 강산을 지키는 것은 자연에 은거하는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선비를 데리고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자 '청산이 글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 만사를 맡기지 않고 '다만'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고 한다.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에게 '인간 만사'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뜻하고, '강산'을 지키며 사는 것은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화자가 인간 만사를 하나도 맡지 않고 강산에서 사는 것은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